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

- 드랑(G. Durand)의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를 중심으로 -

류 수 현*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Interpretation of Images and Symbols from Greek and Roman Mythology in Contemporary Fashion

- Focused on *Durand's Classification of the Imaginary* -

Soo-Hyeon Rhew* · Min-Ja Kim**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0. 11. 4, 심사(수정)일: 2011. 1. 2, 개재 확정일: 2011. 1. 31)

ABSTRACT

The study aims to identify how the symbols and images of *Greek-Roman* myths in contemporary fashion have been reflected in respects of meaning and forms, and to find out the organic course from meaning to forms by using *Durand's* classification. The results define the significance of *Greek-Roman* myths in contemporary fashion, and systematically suggest a direction of imagination for more creative design. In the diurne regime, the symbolism of purity, heroism and fear appeared. In the nocturne regime, the symbolism of maternity and sensuality appeared. In the dramatic regime, the symbolism of androgyny appeared.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s contained in each symbolism are common. In this regard, it is possible to trace organic relationships in the creation of images through the verbal scheme. In addition, the verbal scheme creates archetypal images that lead to images and symbols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so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archetypal images and the format of garments. The study examined how the archetypal images that appeared in the mythical images were expressed in garments through the verbal system.

Key words: *Greek-Roman* myths(그리스·로마 신화), fashion(패션), image(이미지), symbol(상징), symbolism(상징성), verbal scheme(동사적 구도)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10956)에 의해 일부 지원되었음.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Hae-Joo Choi, e-mail: hjchoi@hansung.ac.kr

I. 서론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시원(始原)의 이야기인 신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패션에 있어서도 신화는 꾸준히 창조의 원천이 되어 왔다. 특히 그리스·로마 신화는 서양 문화의 근간으로 서양인들의 문화, 예술,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요네(Vionnet)는 드레이퍼리(drappery)를 활용한 가디스 드레스(goddess dress)를 클래식(classic) 아이템(item)으로 정착시켰으며¹⁾, 베르사체(Versace)는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Medusa) 모티프(motif)를 브랜드로고(brand logo)로 디자인하였다. 그 외에도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²⁾, 발렌티노(Valentino)³⁾ 등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신화의 이미지들을 활용한 디자인을 전개해왔다.

글자가 없던 시대부터 존재해왔던 신화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숭배로 인하여 거짓된, 과장된 이야기로 평화되어 학문의 영역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계몽주의와 실증주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그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과학, 철학, 논리학 등의 인식론들이 그 근본에서부터 전복되자 그간의 합리적 이성에 관한 믿음들이 순식간에 부정되기 시작하였다.⁴⁾ 인류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국의 문화, 집합적 대상으로서 민족과 민족의 원류로 관심이 돌려졌으며, 이는 고대 신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⁵⁾ 또한 신화학자 뒤메질(G. Dumézil)의 성과로 인하여 신화와 역사와의 연관성이 밝혀지기 시작하여, 역사학에서 신화를 학문의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했다.⁶⁾ 그 결과, 신화는 더 이상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닌 신화적 논리 체계를 가진 것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⁷⁾

그동안 서양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개념 등의 이성적 사고를 시작적인 이미지보다 중시해왔으나, 20세기 초 오디오와 비디오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미지의 위상이 높아졌다.⁸⁾ 그리하여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신화와 그 상상력에 주목하게 되었고 새로운 이미지 창조에 신화가 일조하게 되었다.

뒤랑(Gilbert Durand)은 인간의 무의식에서 원형적 이미지가 발생하는 기제인 동사적 구도(verbal scheme)를 연구하여 크게 두 체제로 구분됨을 밝혔

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상상력이 이미지와 상징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밝혔다. 그리고 각 체제에 속하는 동형적 이미지들을 수집하여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를 완성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상상력의 구조이다. 그리고 각 체제의 동사적 구도들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지배반사로부터 구분된 것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사고체계와 직결된다. 뒤랑은 각 체제가 서로 환원불가능하며 그 사회의 사고체계에 따라 우세한 체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 때 이미지 수집의 대상이 된 것 중 뒤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신화였다. 신화에는 각 체제의 이미지와 상징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대한 복식학계의 선행연구⁹⁾를 살펴보면, 신화의 상징성으로 접근하여 연구해온 사례는 있었으나, 그 상징의 체계를 보다 근본적인 인간사고의 원형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접근도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화를 통해 인간의 상상계에 접근하여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가 복식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뒤랑의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복식 이미지와 상징의 형성 과정을 상상계의 구조로써 밝혀보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패션에서 그리스·로마 신화가 갖는 의의를 밝히고, 신화 이미지를 활용하여 창의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상상력 발휘의 방안을 모색해보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뒤랑의 분류체계에 따라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들을 분류하고, 상징성을 도출한다. 둘째, 이를 통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화의 이미지 해석을 위한 틀을 확립한다. 셋째, 이 틀을 활용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도출하고 상징성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복식 조형화되는 과정을 해석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알렉산더 맥퀸의 획기적인 신화 컬렉션(collection)이 있었던 1997년부터 2009년 10월 까지의 서양 여성 패션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신화관련 전문서적, 회화자료, 복식사 서적을 통한 문헌연구와 패션 잡지에 실린 기사 및 사진 분석을 통한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잡지의 기사 내용

에서 신화적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디자인만을 추출하였다. 신화적 표현이 현대 패션에서 내포하는 의미의 분석을 위하여 추출된 디자인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잡지는 미국 보그(Vogue)를 중심으로 기사 내용 검색을 통해 신화적 표현으로 묘사된 복식 혹은 신화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추출하였다. 미국 보그를 통해 1차 검색한 후 관련된 디자이너 및 컬렉션을 콜렉시오니(Collezioni), 북(Book), 컬렉션(Collection), www.style.com, www.firstviewkorea.com을 통해 추가 검색하였다.

II. 뒤랑의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

본 장에서는 인간이 이미지와 상징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랑의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의 구성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다.

뒤랑은 바슬라르(Bachelard)¹⁰⁾의 상상력에 주목하여 인간 지각활동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상상력은 이미지와 상징을 발생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보다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밝혔다. 그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상력의 결과물들인 이미지와 상징들을 분류해 보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본원적 충동을 크게 2개의 차원, 세분화 시켜서는 총 3개의 차원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이미지와 상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표 1)¹¹⁾을 통해 보여주었다.

뒤랑은 분류도를 완성하기 위해 신화, 문학작품, 예술작품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언어학을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 탐구의 기반으로 삼았다. 언어는 가장 기본적인 간접 표현이다.¹²⁾ 이미지가 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어는 그 대표주자이다. 뒤랑은 조형적인 이미지를 뿐 아니라 언어를 추적함으로써 동형성을 가진 이미지들을 그룹화하였다. 그러므로 언어 표현은 그 내용 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분류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뒤랑은 인간의 상상계가 이미지와 상징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작용은 인간의 본원적 충동과 사회문화적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뒤랑은 인간의 본원적 충동을 베체레프(Betcherev)의 반사학으로부터 찾았으며, 본원적 충동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르루와 구랑(Leroi-Gouhtran)의 연구¹³⁾를 통해 밝혔다. 뒤랑은 ‘물질이란 르루와 구랑의 말대로 심리 성향의 복합체, 몸짓의 그물들일 뿐이다. 하나의 그릇이란, 액체를 담고자 하는 보편적 성향의 물질화일 뿐이며, 그 일차적 성향에, 찰흙으로 빚을 것인지 혹은 나무나 나무 껍질을 깎아서 만들 것인지의 이차적 성향이 덧붙여진다’¹⁴⁾라고 하며 르루와 구랑의 ‘힘(force)+물질(matière)=도구(outil)’라는 공식에 따라 ‘각각의 몸짓은 하나의 물질과 기술을 동시에 요청하며, 하나의 상상적인 물질, 하나의 도구를 야기시킨다’고 말했다.¹⁵⁾ 그는 인간의 구체적 몸짓인 동사적 힘의 차원을 하나의 출발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물질, 문화, 이미지적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낳게 한 동사적 힘으로서의 표상이다.¹⁶⁾ 상상력이 이미지와 상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사적인 힘이 작용한다. 뒤랑은 동사적 힘의 차원을 분류하여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의 기준으로 삼았다.

동사적 힘의 차원으로 분류된 3개 차원의 이미지와 상징 발생의 메커니즘을 표로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이 표의 가로축의 분류들은 각기 상동적인 것들끼리 이미지의 별자리를 형성하는 상호 이질적인 구조들의 분류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세로축은 그 별자리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과 그것을 지배하는 논리적 원칙 및 뒤랑이 인류학적 도정이라 일컬은 과정에서의 상징 발생과 쇠퇴의 메커니즘(mechanism)이다.¹⁷⁾

뒤랑은 표의 가로축에 나타나는 상상력의 구조의 밑에 있는 동적인 힘들의 구분을 베체레프가 갓난아이를 연구하면서 얻은 반사학(reflexologie)에서 빌려온다.¹⁸⁾ ‘지배 반사(dominante réflexe)’는 개체 발생에서 최초의 조절(accommodation) 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체계로서¹⁹⁾, 피아제(J. Piaget)²⁰⁾의 이론에 따르면 상징 체계를 구성하는 동화 과정

〈표 1〉 뒤랑의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

체제 혹은 구조	낮 체제		밤 체제			
구조 Structure	분열형태적(혹은 영웅적) 1)이상화 혹은 자폐적 후퇴 2)분열주의(분열) 3)기하주의, 대칭, 거인증 4)논쟁적대구법	종합적(혹은 극적) 1)모순의 병존과 체계화 2)대립적인 것 간의변증법, 극화 3)역사화 4)부분적(순환) 혹은 전체적 진 보주의	신비적(혹은 반어적) 1)중복과 끈기있음 2)점착성, 반어적 점착성 3)감각적 사실주의 4)축소변형(걸리버)			
설명 및 정당화 원칙, 혹은 논리적 원칙	객관적으로 이질화 지향, 주관적 으로는 동질화 지향(자폐증), 배 척, 대립, 동일성의 원칙이 지배	시간의 요인에 의해 모순을 연결 하는 통시적 재현, 갖가지 형태 를 띤 인과성의 원칙이 지배	객관적으로는 동질화 지향(끈기 있는), 주관적으로는 이질화 지 향(반어적 노력), 유추, 유사의 원칙이 지배			
반사적 특성	자세적지배와, 손으로만든도구와, 거리를두는감각적고안물들(시각, 청각 등)	계합적 영역, 리드미컬한 고안물 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감각 적 고안물들 (운동감각적, 음악 적 리듬적 등)	소화 지배와 체내 감각, 체온의 고안물 및 촉각적, 후각적, 미각 적 고안물			
동사적 구도 (Schemes) (Verbaux)	구분하다	연결하다	뒤섞다			
형용사적 원형 Archetypes (Epithetes)	나누다 ≠ 섞다 오르다 ≠ 추락하다 ←	의다 → 진보하다 되돌아오다, 대조하다 ←	내려가다, 소유하다 → 침투하다			
실사적 원형 Archetypes (Substantifs)	순수하다 ≠ 더럽혀진	높은 ≠ 낮은 앞으로, 미래의	뒤로, 과거의	깊은, 고요한, 따뜻한, 내밀의, 감추어진		
상징부터 종합소까지 Des Symboles aux Synthèmes	빛 ≠ 어둠, 공기 ≠ 독기, 영웅의 무기 ≠ 사슬, 세 례 ≠ 더럽혀짐	정상 ≠ 삶연, 하 늘 ≠ 지옥, 우두 머리 ≠ 부하, 영 웅 ≠ 괴물, 천사 ≠ 동물, 날개 ≠ 파충류 광명	불-불꽃, 자손, 나무, 씨앗 달, 남녀양성, 복수(複數)신 달력, 계수학, 세 짹, 네 짹, 점성학	바퀴, 십자가, 달, 남녀양성, 복수(複數)신 밤, 어머니, 그 릇	소우주, 어린아 이, 업지손가락, 동물인형, 색 밤, 어머니, 그 릇	거주지, 중심, 꽃, 여성, 음식 물, 실체
	태양, 황도, 아버 지의 눈, 문 문 자, 만트라, 무 기, 갑옷, 올타 리, 할례(割禮), 삭발례 등	사다리, 계단, 신 석, 종루, 독수리, 종달새, 비둘기, 주 피터 등	입문, 두 번 테어 남, 주신제 (酒神 祭), 메시아, 화 금석, 음악 등	희생, 용, 나선, 달팽이, 곰, 어린 퀴, 부싯돌, 교유 기 등	베, 삼키는 것과 삼켜지는 것, 코 볼트, 장단 단격, 오시리스, 물감, 싹, 멜튀진, 뻣, 망토, 잔, 컵 등	무덤, 요람, 범데 기, 설, 동굴, 만 다라, 배, 연돌 구, 알, 우유, 꿀, 포도주, 금 등

출처: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 2008, p. 670.

에서 이완 상태에 있는 모든 재현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체테레프의 반사학에서부터 온 상호 이질적인 세 축 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몸을 꽂꽂이 세울 때 다른 반사들을 조정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서, 자세(position)의 지배에 해당하며, 신체의 평형 감각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지배는, 빛나거나 시각적인 물질들 및 분리하는 기술, 순수화의 기술들을 요구하고, 그런 도구를 만들어 낸다.²¹⁾ 이

는 이분법적 사고와 연결되며 이를 낮 체제라 하며 동물적 공포-추락-시간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하여 그것과 대립적인 입장에서 밤의 이미지들을 물리치기 위한 이미지들로 구성되며 영웅적 체제라고도 명명한다. 자세 지배는 시각적 발광 물질과 분리·정화의 기술이 필요하며, 그 기술의 상징은 대개 무기·화살·칼 등이다.²²⁾

두 번째는 신비적 체제라 명명되며 영양 섭취(nutrition)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갓난아이에게 있

어 입으로 빠는 반사 행위 및 그에 부응해서 아이의 머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의해 표명되는데, 동굴 모양의 땅 등 깊이 있는 물질들을 요구하며, 무언가를 담는 그릇을 넣고, 음료나 음식물의 기술에 대한 이미지들을 형성하게 된다.²³⁾ 반복 동작의 율동성, 성적인 유통성이 근원적으로 젖을 빠는 행위의 유통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삼킴의 상징들은 빈번히 성적인 상징들로 이어진다.²⁴⁾ 낮 체제의 악의 구도였던 밤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긍정적 이미지화되면서 내면으로의 귀환으로서 어둠을 완화시키며 오히려 평온함과 폐락을 가져다준다. 소화의 하강성과 관련된 두 번째 몸짓은 물 혹은 동굴과 같은 깊이의 이미지를 발생시키며, 용기·잔·상자 등을 만들어내며, 음료나 음식과 관계 있는 기술과 연결된다.²⁵⁾

세 번째는 종합적 혹은 극적 체제라 명명되며, 팔로 껴안는 충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주기적인 성격과 유통적 움직임을 수반하면서, 계절적인 순환 및 그에 따른 천체의 이동에 투사되어 나타나며 바퀴나 도르래, 교유기나 부싯돌 같은 순환이나 유통적 기술의 대용물들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중국에는 성적인 유통에 의한 기술론적인 마찰과 관련된 표현을 놓는다.²⁶⁾ 이러한 순환과 재생에 의해 죽음을 극복하고 진보를 향해 나아감을 보여준다. 바퀴나 물레, 우유 젓는 통이나 부싯돌 등과 같이 순환 현상과 관계된 기술 대용물들을 모두 포함하여, 결국에는 모든 마찰 기술을 성적 리듬체계로 다원결정하게 된다.²⁷⁾

뒤랑은 신비적 체제와 극적 체제를 낮 체제의 어둠과 부정적 이미지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밤 체제로 묶어 크게 두 체제로 구분하였으나, 기본적인 동사적 구도의 단계에서 본다면 3개의 체제로 나뉘어진다. 또한 현대 사회는 서양 중심 사상의 붕괴, 세계화, 여성의 권위 강화 등 극적 체제의 특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3개의 체제로써 보다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체제로 나누어 복식에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은 세로축을 따라 이미지와 상징이 형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체계화하였는지 살펴보겠다. 어떤 물질이든 같은 몸짓에 의해 생겨난 것은 같은 범주에 해당된다. 꽃을 담기 위해 째맞추면 꽃병이 되고, 사

람이 입기 위해 째맞추면 가죽옷이 된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지배 행위, 몸짓이다.²⁸⁾ 뒤랑은 이를 구도의 개념으로 승화시킨다. 구도(schème)이란, 무의식적인 몸짓과 원동감각 사이를, 반사 지배와 표현 사이를 접합시켜주는, 구체적 표현 속에 육화된 도정이다.²⁹⁾ 반사 지배로부터 구도로 분화된 몸짓들은, 자연환경, 혹은 사회 환경과 접합하면서 커다란 원형들을 결정한다.³⁰⁾ 원형은 동사적인 구도들의 실사화를 형성하는데, 동사적 구도가 자연 환경, 사회 환경과 만나면서 구체적인 표현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한다.³¹⁾ 이것은 용(C.G. Jung)에 의하면 원형적 이미지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결국 원형과 원형적 이미지는 동일하다. 원형은 높은, 낮은, 따뜻한, 추운, 메마른, 습기 있는, 순수한, 깊은 등의 감각적 혹은 지각적인 특질이 문제되는 형용사적인 원형들과, 빛·어둠·심연·어린아이·달·어머니·십자가·원 등 실사적으로 이름 붙여진 대상이 문제되는 실사적인 원형으로 구분되는데, 원형은 구체적인 구도들과, 지각적 환경에 의해 제공된 이미지들 사이의 매개자이다.³²⁾ 원형이 단순 상징과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양면성이 없고 항시적 보편성을 띠며 구도와 합치된다는 것이다.³³⁾ 동사적 구도는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형용사적, 실사적 원형을 결정하고, 이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약속되고 깊이가 깊어졌을 때 상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상징의 대상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하나의 원형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면서 다양한 체제 속에서 드러난다.³⁴⁾ 즉,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징의 의미는 변화할 수 있다.

뒤랑의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는 하나의 구조로서 고착된 것이 아니라 역동성을 가진 구조이다.³⁵⁾ 서로 다른 체제의 이미지와 상징들이 동조 혹은 대립으로써 나타나게 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지배적인 체제와 대립적인 체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체제의 이미지와 상징들의 성쇠는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를 복식에 적용함으로써 복식에 나타난 이미지와 상징들은 단지 현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그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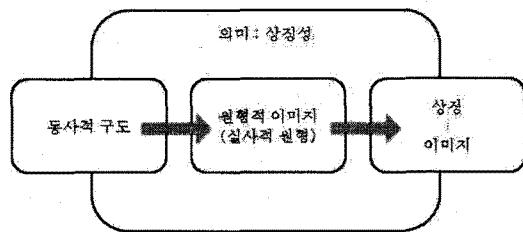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 체제에 나타난 복식 이미지와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상상력이 어떻게 복식을 창조해내는지 밝히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III. 뒤랑의 분류체계에 따른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분류

본 장에서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을 뒤랑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뒤랑의 상상계의 이미지 분류도의 개념을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분석을 위하여 재정의하고자 한다. 뒤랑의 분류도에서는 낮과 밤으로 나뉘어져있던 체제를 낮 체제, 밤 체제, 극적 체제의 세 개로 명확히 구분한다. 현대 사회는 제 3 세계의 대두, 세계화의 물결 등으로 극적 체제가 그 힘을 키우고 있다. 그러므로 낮, 밤의 두 체제를 낮, 밤, 극적 체제의 세 개로 명확히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문학적인 부분이 강한 형용사적 원형은 조형적인 부분의 분석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이미지를 유발시키는 최초의 몸짓을 동사적 구도로, 이를 통해 최초로 발생하는 실사적 원형을 원형적 이미지로 명명하며, 이를 중심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원형적 이미지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상징과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가 나타난 심리적인 충동과 원형을 밝히고자 함이므로 두 신화의 구분 없이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화 속 상징과 이미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상징성으로써 의미 부분을 분류하였다. 뒤랑의 분류체계는 의미에 대해서 따로 분류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자는 뒤랑의 이론을 바탕으로 각 체제별 상징성을 분류하였다. 각 체제는 사고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각각의 의미적인 추구내용이 서로 구별되었다. 뒤랑의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의 개념을 재정의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뒤랑의 상상계의 이미지 분류도의 개념 재정의



본 장에서는 <표 2>에 따라 뒤랑의 이론을 그리스·로마 신화에 적용하여 각각의 동사적 구도에서부터 발생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들을 각 체제별 의미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

1. 낮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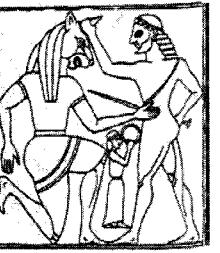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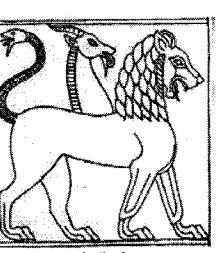
낮 체제의 이미지들을 일으키는 동사적 구도는 '상승하다. 빛나다. 자르다. 분리하다. 추락하다. 물어뜯다. 재빠르게 움직이다'이다. 이러한 동사적 구도들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움, 권위, 지배, 지배받아야 할 대상, 물리쳐야 할 괴물 등의 원형적 이미지를 낳게 된다.³⁶⁾ 그리하여 낮 체제의 상징성을 순수성, 영웅성, 공포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동사적 구도에서부터 발생한 원형적 이미지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난 이미지와 상징들을 각 의미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순수성

순수성은 더러움이 섞이지 않은 완벽함, 미, 신성을 의미한다. 순수성에서는 '상승하다, 빛나다, 분리하다'의 동사적 구도로부터 순수성을 내포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형성되며, 이들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이미지와 상징으로 나타난다.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승하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산, 거대화, 새, 날개, 화살, 번개'이다.³⁷⁾ '산' 그리고 '높은 곳'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신전(<표 3>의 파르테논 신전 그림³⁸⁾), 올림포스(Olympus) 산 등으로 나타났다. '거대화'는 신들을 조각한 거대한 신상으로 나타났다. '새, 날개'는 제우스(Zeus)가 변신한 독수리

<표 3> 낮 체제의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상징성	동사적 구도	원형적 이미지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대표적 사례
순수성	상승하다	산, 높은 곳	신전 그리스로마 신들의 올림포스 산	  <p>파르테논 신전 www.naver.com</p>
		거대화	거대한 신상(제우스, 아테나 등)	
		새, 날개	제우스와 독수리, 백조 에로스와 비둘기 헤르메스의 모자와 신발의 날개 에로스의 날개	
		화살, 번개	제우스의 번개, 아폴론의 화살 아르테미스의 화살	
	빛나다	빛	황금, 금색, 제우스와 황금비	
	분리하다	정화수, 불, 공기	스티克斯강, 페르세포네의 헛불	
영웅성	상승하다	하늘	하늘의 신 제우스, 유피테르, 우라노스	  <p>헬리오스의 후광, 고대 그리스의 미술과 신화, 2005, p. 45.</p>
		새	제우스와 독수리	
		거대화	거대한 신상(제우스, 아테나 등)	
		머리, 뿔, 어깨	바쿠스신의 뿔잔, 아틀라스	
		홀, 검, 창, 칼	헤라의 홀	
	빛나다	금색, 태양	헤라클레스와 황금사과	
		빛	태양신 아폴론, 아테나의 황금투구	
		후광, 영관	헤라의 왕관, 헬리오스의 후광	
	분리하다	눈	아테나와 부엉이의 눈	
		전사, 무기	아르테미스의 화살 페르세우스의 태양원반 헤라클레스의 곤봉, 아테나의 창	
		갑옷, 방패	아테나의 갑옷, 방패	
공포성	묶다	묶기	디오니소스와 나귀	  <p>미노타우로스, 고대 그리스의 미술과 신화, 1998, p. 194.</p>
	재빠르게 움직이다	말, 소	하데스의 말 포세이돈과 말, 황소	
	물어뜯다	아가리	포세이돈의 삼지창	
		울음소리	사이렌의 노래유혹	
		늑대	하데스의 늑대가죽으로 된 옷	
		개	지옥문의 개 캐르베로스	
	추락하다	추락	이카루스의 추락, 퀴클롭스 미노타우로스	
		심연의 공간	지하감옥 타르타로스 라비린토스	
		무거움, 검정색, 밤	지하감옥 타르타로스	
		용	에키드나, 키메라, 스팽크스, 고르곤 캐르베로스	
		뱀	아폴론과 피تون, 헤라클레스와 휘드라	
		파, 월경혈	메두사, 키메라, 사이렌	
		달	달의 여신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헤카테	

와 백조, 에로스(Eros)와 비둘기, 헤르메스(Hermes)의 모자와 신발의 날개, 에로스의 날개(〈표 3〉의 그림³⁹)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빛나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빛’이며⁴⁰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는 황금, 제우스와 황금비 등으로 나타났다. ‘분리하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정화수, 물, 공기’이며⁴¹, 이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스틱스 강(Styx), 페르세포네(Persephone)의 횃불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영웅성

영웅성은 영웅, 지배자, 지배력, 남성성, 힘을 상징한다. ‘상승하다, 빛나다, 분리하다, 뮤다’의 동사적 구도로부터 영웅성을 내포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형성되며, 이들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이미지와 상징으로 나타난다.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승하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하늘, 새, 거대화, 머리, 뿔, 어깨, 흘, 검, 창, 칼’이다.⁴² ‘하늘’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하늘의 신 제우스, 유피테르(Jupiter), 우라노스(Uranus) 등으로 나타났다. ‘새’는 제우스와 독수리 등으로 나타났다. ‘거대화’는 거대한 신상 등으로 나타났다. ‘머리, 뿔, 어깨’는 바쿠스(Bacchus) 신의 뿔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아틀라스(Atlas)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빛나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금색, 태양, 빛, 후광, 영관, 눈’이다.⁴³ ‘금색, 태양, 빛’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헤라클레스(Hercules)와 황금사과, 태양신 아폴론(Apollo), 아테나(Athena)의 황금투구 등으로 나타났다. ‘후광, 영관’은 헤라(Hera)의 왕관, 태양신 헬리오스(Helios)의 후광(〈표 3〉의 그림) 등으로 나타났다. ‘눈’은 아테나/미네르바(Minerva)와 부엉이의 눈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분리하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전사, 무기, 갑옷, 방패’이다.⁴⁴ ‘전사, 무기’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아르테미스(Artemis)의 화살, 페르세우스(Perseus)의 태양원반, 헤라클레스의 곤봉, 아테나의 창 등으로 나타났다. ‘갑옷, 방패’는 아테나의 갑옷과 방패(〈표 3〉의 그림⁴⁵) 등으로 나타났다. ‘뮤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묶기(묶는 행위, 묶여진

것)⁴⁶이며 이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디오니소스(Dionysos)와 나귀 등으로 나타났다.

3) 공포성

공포성은 위협적인 어둠과 죽음을 의미하며 이는 영웅들에 의해 물리쳐야 할 대상이 지니는 상징성이다. ‘재빠르게 움직이다, 물어뜯다, 추락하다’의 동사적 구도에 따라 공포성을 내포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형성된다.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빠르게 움직이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말, 소’이며⁴⁷ 이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하데스(Hades)의 말, 포세이돈(Poseidon)과 말·황소 등으로 나타났다. ‘물어뜯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아가리, 울음소리, 늑대, 개’이다.⁴⁸ ‘아가리’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괴물의 이빨로 만들어진 포세이돈의 삼지창 등으로 나타났다. ‘울음소리’는 바다에서 노래로 사공들을 유혹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이렌(siren) 등으로 나타났다. ‘늑대’는 하데스의 늑대가죽으로 된 옷 등으로 나타났다. ‘개’는 지옥문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Cerbère)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추락하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추락, 심연의 공간, 무거움, 검정색, 밤, 용, 뱀, 피, 월경혈, 달’이다.⁴⁹ ‘추락’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미궁 라비린토스(Labyrinthos)를 탈출하기 위해 날개를 단 이카루스(Ikarios)의 추락, 지하감옥 타르타로스(Tartare)에 추락하는 큐클롭스(Cyclops), 미궁 라비린토스에 갇힌 미노타우로스(Minotauros)(〈표 3〉의 그림) 등으로 나타났다. ‘무거움, 검정색, 밤’은 지하감옥 타르타로스 등으로 나타났다. ‘용’은 에키드나(Echidna), 키메라(Chimaera)(〈표 3〉의 그림), 스핑크스(Sphinx), 고르곤(Gorgo), 케르베로스 등으로 나타났다. ‘피, 월경혈’은 여성화된 괴물들인 메두사(Medusa), 키메라(〈표 3〉의 그림), 사이렌 등으로 나타났다. ‘달’은 달의 여신 다이아나(Diana)·아르테미스·헤카테(Hecate)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낮 체제의 각 상징성에 해당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를 동사적 구도에 따라 발생한 원형적 이미지와 연결하여 분류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2. 밤 체제

낮 체제에서 등장했던 '추락하다'로부터 발생된 공포성의 이미지들이 밤 체제에서는 그 정서적 가치들을 뒤집음으로써 완곡화된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추락'은 '하강'으로 완곡화되고, '심연'은 '잔'으로 축소된다. 완곡화된 이미지들은 편안한 안식처, 태어난 곳, 그리고 성적인 이미지와 연결되며, 내부에 쌓아두고 모아두는 음식물, 금 등으로 표현된다.⁵⁰⁾ 그리하여 밤 체제의 상징성을 모성, 관능성, 탐욕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밤 체제의 이미지들을 일으키는 동사적 구도는 '하강하다, 담다, 삼킨다'이다.⁵¹⁾ 동사적 구도에서부터 발생한 원형적 이미지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난 이미지와 상징들을 각 의미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성

모성은 내면으로의 귀환으로 탄생과 보호를 의미한다. '하강하다', '담다, 삼킨다'의 동사적 구도에 따라 모성을 내포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형성된다.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강하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밤, 바다, 대지, 운송수단, 보호수단'이다.⁵²⁾ '밤'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밤의 여신 닉스(Nyx) 등으로 나타났다. '바다'는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Venus)(〈표 4〉의 그림) 혹은 아프로디테(Φροδίτη) 등으로 나타났다. '대지'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Gaia), 테메테르(Demeter), 베스타(Vesta), 대지의 정령인 님프(Nymph) 등으로 나타났다. '운송수단, 보호수단'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영웅들을 운반시켜주고 보호해주는 배 등으로 나타났다. '담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용기, 알, 잔, 동굴, 자궁'이며⁵³⁾, 이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여성화된 정령인 님프, 출산의 여신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관능성

관능성은 성적인 욕구와 쾌락을 의미한다. '삼킨다', '하강하다'의 동사적 구도에 따라 관능성을 내포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형성된다.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킨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걸리버화, 뱀, 물고기, 인체'이다.⁵⁴⁾ '걸리버화'⁵⁵⁾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아테나,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 등으로 나타났다. '뱀, 물고기'는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인 괴물 사이렌 등으로 나타났다. '인체'는 누드화 등으로 나타났다. '하강하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밤, 배, 조개껍데기'이다.⁵⁶⁾ '밤'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밤의 여신, 검정색 등으로 나타났다. '배, 조개껍데기'는 조개껍데기를 타고 바다를 유랑하는 모습으로 즐겨 표현되는 비너스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 탐욕성

탐욕성은 풍요로움, 부를 의미한다. '담다', '삼킨다'의 동사적 구도에 따라 탐욕성을 내포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형성된다.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담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젖, 꿀, 음료, 화려한 색'이다.⁵⁷⁾ '젖, 꿀'은 여러 개의 가슴이 달려 있는 에페수스(Ephesos)의 다이아나상(〈표 4〉의 그림) 등으로 표현되었다. '음료'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음료인 포도주 등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색'은 최고의 여신 헤라와 그녀를 상징하는 공작 등으로 나타났다. '삼킨다'에 의해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는 '소금, 금, 배설물'⁵⁸⁾이며,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손이 닿는 것이면 뛰든지 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게 된 마이다스(Midas) 왕 등으로 나타났다.

밤 체제의 각 상징성에 해당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를 동사적 구도에 따라 발생한 원형적 이미지와 연결하여 분류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3. 극적 체제

극적 체제에서는 순환을 통해서 시간의 공포를 초월하게 된다. 반복된 순환은 리듬을 형성하며 결국 진보로 승화된다. 극적 체제는 '포옹하다'의 동사적 구도로부터 시작되는데, 포옹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결합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고, 순차적인 양립은 순환을 놓게 된다. 그리고 계속되는 순환은 결국 진보를 놓게 된다.⁵⁹⁾ 그러므로 극적 체제의 상징성을 양성성, 순환성, 진보성으로 범주화하였다.

극적 체제의 이미지들을 일으키는 동사적 구도는 '포옹하다, 순환하다, 리듬있게 마찰하다'이다.⁶⁰⁾ 동사적 구도에서부터 발생한 원형적 이미지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난 이미지와 상징들을 각 의미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성성

양성성은 대립되는 것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결합을 통해 완전해 지는 것이다. '포옹하다'의 동사적 구도로부터 '남녀양성, 반인반수, 용, 아들'이라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형성된다.⁶¹⁾ '남녀양성, 반인반수'는 그

리스·로마 신화에서 반인반수인 사이렌, 남녀 양성의 신인 아르테미스(<표 5>의 그림⁶²⁾), 디오니소스, 여성 이면서 남성의 힘을 가진 아마존여전사(Amazones)(<표 5>의 그림) 등으로 나타났다. '용'은 여러 동물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진 용 등으로 나타났다. '아들'은 신과 신 혹은 신과 인간의 아들로서 메르쿠리우스(Mercurius), 헤라클레스 등으로 나타났다.

2) 순환성

다양한 요소들이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순환하는 이미지들은 결국 시간을 초월한 영원함을 상징한다. 이것이 순환성이다. '순환하다'의 동사적 구도로부터 '달, 식물, 회생제의, 회생물, 여행자, 원, 바퀴, 마차, 물레'라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형성된다.⁶³⁾ '달'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달의 여신 헤카테, 다이아나, 아르테미스(<표 5>의 그림) 등으로 나타났다. '식물'은 제비꽃으로 다시 태어난 아티스(Attis), 아네모네(anemone)로 환생한 아도니스(Adonis) 등으로 나타났다. '회생제의, 회생물'은 아르테미스와 곰 등으로 나타났다. '여행자'는 여행자의 신 헤르메스(<표 5>의 그림), 여행을 통해 영웅이 되는 헤라클레스

<표 4> 밤 체제의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상징성	동사적 구도	원형적 이미지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대표적 사례
모성	하강하다	밤	여신 닉스	
		바다	비너스	
		대지	가이아, 데메테르, 베스타, 님프	
		운송수단, 보호수단	배	
	담다	용기, 알, 잔, 통곡, 자궁	님프 출산의 여신	
관능성	삼키다	걸리버화	아테나의 탄생 디오니소스의 탄생	
		뱀, 물고기	사이렌	
		인체	누드화	
		밤	밤의 여신, 검정색	
	하강하다	배, 조개껍데기	비너스	
탐욕성	담다	젖, 꿀	에페수스의 다이아나 상	
		음료	포도주	
		화려한 색	헤라와 공작	
	삼키다	소금, 금, 배설물	마이다스	

비너스와 조개,
그리스 신화, 2005, p. 118.

에페수스의 다이아나상,
그리스 신화, 2005, p. 22.

레스 등으로 나타났다. '원, 바퀴, 마차'는 태양을 모는 태양마차 등으로 나타났다. '물레'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페넬로페의 실짜기, 인간의 운명을 실로 짓는 운명의 여신 클로토(Clotho) 등으로 나타났다.

3) 진보성

진보성은 재생과 부활을 통해 보다 진보됨을 의미한다. '리듬있는 마찰'의 동사적 구도로부터 '생산물, 아들'이라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형성되며,⁶⁴⁾ 이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신과 인간의 아들이지만 결국 신이 되는 헤라클레스 등으로 나타났다.

극적 체제의 각 상징성에 해당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를 동사적 구도에 따라 발생한 원형적 이미지와 연결하여 분류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본 장에서는 뒤팽의 '상상계 이미지들의 동위적 분류도'를 그리스·로마 신화에 적용하여 동사적 구도와 원형적 이미지를 거쳐 이미지와 상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밝혔다. 뒤팽이 이미 밝혔듯이 신화는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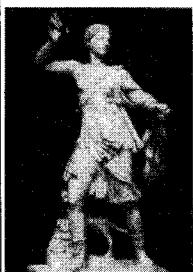
체제가 모두 반영되어 있고, 시대마다 그 부각되는 신화 내용의 변화가 그 사회가 변화하였음을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그리스·로마 신화를 각 체제별 상징 성에 따라 분류해본 결과 모든 체제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5> 신화의 내용은 위낙 방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4장의 복식에서 나타난 신화적 표현과 관련한 내용 위주로 <표 3-5>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현대 패션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

본 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위한 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각 체제별, 의미 범주 별로 복식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로마 신화

<표 5> 극적 체제의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상징성	동사적 구도	원형적 이미지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대표적 사례
양성성	포옹하다	남녀 양성, 반인반수	사이렌 아르테미스 디오니소스 아마존여전사	
		용	용	
		아들	메르쿠리우스 헤라클레스	
순환성	순환하다	달	헤카테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식물	아티스와 제비꽃 아도니스와아네모네	
		희생 제의, 희생물	아르테미스와 콤	
		여행자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원, 바퀴, 마차	태양마차	
		물레	페넬로페의 실짜기 운명의여신 클로토	
진보성	리듬있는 마찰	생산물, 아들	헤라클레스	

의 이미지와 상징이 현대패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추론하여 의미에서 형식에 이르는 유기적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1.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위한 틀

뒤랑은 이미지를 유발시키는 동사적 구도를 통해 의미와 이미지의 형성이 긴밀히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뒤랑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 상징성에 따라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타난 상징과 이미지를 분류한 것이 <표 3-5>의 내용이다. 이것이 복식에 나타난 신화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위한 기준이 된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위하여 먼저 잡지의 기사 검색을 통해 신화의 내용과 관련된 어휘로 표현된 디자인을 추출하였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신화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복식만을 추출하였다. 복식의 조형적 특성은 조형요소인 실루엣, 디테일, 색, 무늬, 재질과 조형원리인 대칭과 비대칭, 통일, 조화, 강조와 모델의 포즈로써 분석하였다.

추출된 디자인에 대한 기사의 언어 표현을 내용 분석하여 상징성을 구분하여 체계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신화적 표현이 어떤 상징성으로써 사용되었

는지 밝히고, <표 3-5>를 참고로 하여 각 특성별로 분류된 복식 이미지들을 언어 표현을 참고로 하여 동사적 구도를 밝히도록 한다. 뒤랑의 체계를 활용한 사고는 더 나아가 동사적 구도로부터 발생한 조형적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세밀하게 추론해볼 수 있게 한다. 뒤랑은 상징성이 동사적 구도를 통하여 원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그것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미지와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앞 장을 통하여 체계별 동사적 구도에서 발생한 원형적 이미지와 그것이 그리스·로마 신화 속에서 어떤 상징과 이미지로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화 이미지를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신화를 이루는 그 이면의 원형적 이미지가 복식에 나타났을 때의 조형 형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위 내용을 종합한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위한 틀은 <표 6>과 같다.

2.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

<표 6>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위한 틀을 활용하여 그리스·로마 신화를 표현한 패션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상징성의

<표 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위한 틀

체제	상징성	동사적 구도	원형적 이미지	이미지와 상징
낮체제	순수성 영웅성 공포성	• 이미지를 유발시키는 동사적 구도 (표3-5 참조)	• 동사적 구도로부터 최초로 발생하는 실사적 원형.	• 원형적 이미지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이미지와 상징 (표3-5 참조)
밤체제	모성 관능성 탐욕성			↔
극적체제	양성성 순환성 진보성			

이미지			복식	
언어 표현	동사적 구도	조형적 특성	의미	형식
• 신화적 표현	• 이미지를 유발시키는 동사적 구도	• 조형 요소 : 실루엣 디테일 색 무늬 재질	• 상징성	• 조형적 특성
• 이미지를 표현하는 언어 표현		• 조형 원리 : 대칭/비 대칭 통일 조화 강조 • 모델의 포즈		↔

범주에 속하는 이미지들은 동일한 동사적 구도를 공유하게 되므로, 신화 이미지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복식 이미지들에 대하여 그 원형적 이미지와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동사적 구도를 추론할 수 있다. 각 체제별 조형적 특성을 종합해본 결과 동일 체제 내에서는 유사한 조형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체제 내의 유사한 동사적 구도는 유사한 이미지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체제 내의 어떠한 동사적 구도가 어떤 복식 조형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밝힐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각 체제별로 상징성에 따른 복식 형식을 분석하고,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동사적 구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원형적 이미지,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이를 반영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복식 조형 형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낫 체제

현대 패션에서 낫 체제의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성은 순수성, 영웅성, 공포성 모두 나타났다. 각 상징성에 해당하는 복식 형식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낫 체제에 해당되는 동사적 구도로부터 복식 형식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해석해 보도록 한다.

① 순수성

순수성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비로운 영역에 해당되는 신의 초월성과 완벽한 미를 의미한다. 신화적 표현과 관련한 언어 표현의 내용을 바탕으로 순수성을 내포하는 이미지들을 추출하였다. '신성한, 천상의, 전능한, 영원불멸한, 조각같은, 이오닉(ionic) 기둥 같은, 우아한, 완벽한 미, 완벽한 봄, 가장 아름다운' 등의 언어 표현을 순수성을 내포한 표현으로 보았으며, 이 내용과 함께 신화적 표현은 미네르바<그림 1>⁶⁵⁾, 베스타의 여사제, 비너스, 아테나, 아프로디테, 여신<그림 2>⁶⁶⁾, 헬레나<그림 3>⁶⁷⁾가 나타났다. 순수성을 내포한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흰색, 금색 등의 단색, 드레이퍼리, H 혹은 A라인의 실루엣(silhouette), 쉬폰(chiffon), 새틴(satin)의 가볍고 빛나는 소재, 대칭적 구성이 주로 나타났

다.<그림 1><그림 2><그림 3>

② 영웅성

영웅성은 지배력, 남성성, 전사, 힘을 의미한다. 신화적 표현과 관련한 언어 표현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웅성의 이미지들을 추출하였다. '활동적인, 전능한, 강한, 여전사, 영웅적, 용기있는' 등의 언어 표현을 영웅성을 내포한 표현으로 보았으며, 이 내용과 함께 신화적 표현은 아르테미스<그림 4>⁶⁸⁾, 아테나<그림 5>, 아틀라스, 여신<그림 6>⁶⁹⁾, 페가수스(Pegasus)가 나타났다. 영웅성을 내포한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무릎 길이와 롱(long) 드레스(dress) 모두 나타났으며, 금색, 흰색&검정색, 흰색, 레드의 색으로 나타났다. 무릎 길이의 경우 벨트를 하고 있었다. 롱 드레스의 경우 모델의 포즈에 있어서 역동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활동성을 높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소품으로써 활과 화살, 벨트를 사용하여 원형적 이미지인 무기를 표현하였다.<그림 4><그림 5><그림 6>

특히 순수성에서도 등장했던 신화적 표현인 아테나/미네르바와 여신은 영웅성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다. 아테나/미네르바의 경우 순수성에서는 금색의 롱 드레스<그림 1> 혹은 검정 드레이퍼리 쉬폰 드레스로 나타났는데, 영웅성에서는 금색의 깃털 장식이 마치 갑옷의 일부분처럼 단단하게 고정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여신도 순수성에서는 금색 혹은 하늘색의 롱 드레스로 표현되었는데<그림 2>, 영웅성에서는 붉은 색의 롱 드레이퍼리 드레스를 역동적인 포즈를 취한 모델로써 표현되었다.<그림 6>

③ 공포성

공포성은 공포와 죽음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신화적 표현과 관련한 언어 표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포성을 의미하는 이미지들을 추출하였다. '무시무시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언어 표현을 공포성을 내포한 표현으로 보았으며, 이 내용과 함께 신화적 표현으로는 비너스<그림 7>, 퀴클롭스와 미노타우로스<그림 8>⁷⁰⁾가 나타났다. 공포성을 내포한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무늬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공포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순수성의 비너스는 붉은 롱 드레이퍼리 드레스였지만, 공포성의 비너스는 밀로의 비너스(Venus de Milo)상을 실물 그대로, 그리고 조각상의 깨진 표면이 모두 드러나게 포토프린팅(photo-printing)한 드레스로 표현되어 시간의 흐름에 의한 파괴와 공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너스에 대한 패러디(parody)적 표현이다.(그림 7)

④ 낫 체제의 복식 형식 해석

낫 체제에서는 '상승하다'와 '빛나다', '분리하다', '추락하다'의 동사적 구도에 의해 이미지가 형성된다.(표 3) 위에서 분석한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표 6>에 적용하여 각 동사적 구도로부터 파생된 원형적 이미지들이 복식 조형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 범위 내에서 살펴보았다.

'상승하다'는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기 위해 수직적으로 '거대화' 된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 '거대화' 된 이미지는 복식에서 수직으로 긴 실루엣과 반복적인 선의 드레이퍼리로 나타났다. 이는 순수성과 영웅성의 범주에서 미네르바(그림 1), 아테나, 비너스, 여신(그림 2)<그림 6>, 헬레나(그림 3), 아르테미스(그림 4)를 표현한 디자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남기은⁷¹⁾에 의하면 드레이퍼리는 그 반복되는 선과 움직임에 따른 유동적인 모습이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여 신성한 이미지를 발산한다. 반복되는 선과 유동적인 모습은 공간의 확장을 가져오며 이는 거대화의 원형적 이미지를 재현한 것임을 보여준다. '상승하다'의 구도는 '날다'로 이어져 '날개, 새' 등의 원형적 이미지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날개'의 이미지는 복식에서 가벼운 쉬폰이 바람에 휘날리는 포즈나 새 것 털을 스커트 혹은 탑에 표현함으로써 나타났다. 이는 순수성과 영웅성의 범주에서 아테나(그림 5), 여신<그림 6>을 표현한 디자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쉬폰은 가볍고 투명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소재이다.⁷²⁾ 가볍고 투명함은 '상승'의 구도와 통하며 이러한 물리적 특성이 '날개, 새'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상승하다'는 인체에 있어서 상부를 강조하는 이미지들을 형성하는데, 특히 '머리'와 '어깨'가 해당된다. 영웅성의 범주에서 아

틀라스로 표현된 디자인을 보면, 어깨를 강조하는 털로 된 케이프(cape)를 통해서 '어깨'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웅성을 표현하기 위한 어깨의 강조는 파워 수트(power suit)의 어깨패드(pad)나, 군복의 어깨 견장에서도 권력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깨에 대한 강조로 시선을 주목시켜 상승의 구도로써 힘 있는 영웅성을 보여준다.

'빛나다'는 '빛'이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흰색, 금색 등의 색과 연결된다. 이것이 복식에서는 흰색, 금색의 색으로 표현되거나, 실크 새틴(silk satin) 같은 광택있는 재질로써 표현되었다. 이는 순수성과 영웅성의 범주에서 베스타의 여사제, 비너스/아프로디테, 여신<그림 2>, 헬레나(그림 3) 미네르바<그림 1>, 아테나<그림 5>, 폐가수스를 표현한 디자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흰색은 서양의 복식 역사를 통해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 신성함을 부여하거나 착용자의 권위가 돋보이게 함으로써 위엄적인 색상으로 존재해왔다.⁷³⁾ 쉬폰이나 새틴과 같이 드레이퍼리가 되는 의복에서 사용될 때 흰색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강조한다.⁷⁴⁾ 금색은 금이라는 귀금속에서부터 빛남이 연상되며 그 색과 빛에 의해 태양을 의미한다.⁷⁵⁾ 이는 복식에서 금사로 자수를 놓는다거나, 금빛 모자나 장신구로 부와 권력, 신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⁷⁶⁾ 낫 체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색인데, 극적 체제의 양성성에서도 남성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분리하다'는 괴물을 자름으로써 무찌르는 '전사'와 '무기'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는 영웅성의 범주에서 아르테미스<그림 4>, 아테나<그림 5>, 여신<그림 6>, 폐가수스를 표현한 디자인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짧은 길이, 흥갑, 벨트, 화살, 역동적인 포즈로써 복식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활과 화살은 소품으로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그림 4> 흥갑<그림 5>과 벨트는 전형적인 전사의 복장이다. 그리고 짧은 길이는 전사에게 보다 자유로운 활동성을 보장해주며, 그리스 시대부터 남성들은 짧은 키톤(chiton)을 입었다. 이러한 특징은 영웅성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된 극적

체제의 양성성에서도 남성성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락하다’는 ‘추락한 곳, 심연’이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발생시키며 그것은 어둡고, 두려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 빠지는 것은 죄를 저지른 ‘괴물’이다. ‘추락한 괴물’인 퀴클롭스와 미노타우로스를 직물에 프린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공포성을 보여주었다.〈그림 8〉

2) 밤 체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밤의 체제의 상징성은 모성과 관능성으로, 탐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상징성에 해당하는 복식 형식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밤 체제에 해당되는 동사적 구도로부터 복식 형식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해석해 보도록 한다.

① 모성

모성은 내면으로의 귀환, 탄생과 보호를 의미한다. 신화적 표현과 관련한 언어 표현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성을 내포하는 이미지들을 추출하였다. ‘숲과 계곡에 둘러싸인, 대지의 어머니’ 등의 언어 표현을 모성을 내포한 표현으로 보았으며, 이 내용과 함께 신화적 표현으로는 님프〈그림 9〉⁷⁷⁾〈그림 10〉⁷⁸⁾가 나타났다. 모성을 내포한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베이지색, 아워글래스(hourglass) 실루엣, 슬리브리스(sleeveless), 석물관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어깨끈이 없는 상의 부분은 가슴을 많이 드러내고 있으며, 하의 부분은 부풀려 하체를 강조하고 있다.〈그림 9〉〈그림 10〉

② 관능성

관능성은 성적인 욕구, 쾌락을 의미한다. 신화적 표현과 관련한 언어 표현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능성을 의미하는 이미지들을 추출하였다. ‘사랑스럽고 섹시(sexy)한, 섹시한, 글래머(glamour), 유혹적인, 요염한, 매력적인, 팜므파탈적인(femme fatale)’ 등의 언어 표현을 관능성을 내포한 표현으로 보았으며, 이 내용과 함께 신화적 표현으로는 레다, 베스타의 여사제, 비너스〈그림 11〉⁷⁹⁾, 사이렌〈그림 12〉⁸⁰⁾, 아프로

디테, 여신, 키메라〈그림 13〉⁸¹⁾가 나타났다. 관능성을 내포한 복식의 조형적 특성은, 대체로 다크(dark) 톤(tone)의 색을 사용하였으며, 반짝이는 비즈 장식, 신체를 적·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슬릿(slit) 혹은 실루엣, 비대칭적 구성을 들 수 있다. 부분적으로 모피를 사용하였다.〈그림 11〉〈그림 12〉〈그림 13〉

순수성에서 등장하였던 베스타의 여사제는 H라인의 흰색의 쉬폰 드레스로 표현되었으나, 관능성의 베스타의 여사제는 비대칭적인 구성으로 왼쪽 다리와 팔이 오른쪽에 비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몸에 페트(fit)되어 몸매를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색은 짙은 네이비(navy)색으로 나타나. 체제의 차이를 확인해 보여주고 있다. 비너스/아프로디테도 낮 체제에서는 전체적으로 롱 드레이퍼리 드레스로 표현되었으나, 밤 체제의 관능성〈그림 11〉에서는 몸매를 모두 드러내는 페트되는 베이지색 시퀸(sequin) 장식이 된 드레스로 나타났다. 여신도 낮 체제〈그림 2〉〈그림 6〉에서는 롱 드레이퍼리 드레스로 표현되었으나, 밤 체제의 관능성에서는 검정색으로 된 코르셋(corset)과 브리프(briefs)로써 표현되었다. 동일한 신화적 표현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어떤 체제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밤 체제의 복식 형식 해석

밤 체제에서는 ‘담다’, ‘삼키다’, ‘하강하다’의 동사적 구도에 의해 이미지가 형성된다.〈표 4〉 위에서 분석한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표 6〉에 적용하여 각 동사적 구도로부터 파생된 원형적 이미지들이 복식 조형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 범위 내에서 살펴보았다.

‘담다’는 담는 용기와 그 안의 내용물로 ‘자궁’과 ‘젖’의 원형적 이미지를 발생시킨다. 자궁과 젖은 모성을 의미하며 복식에서 아워글래스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성에서 님프로 표현된 디자인〈그림 9〉〈그림 10〉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김정선⁸²⁾은 빅토리아시대의 크리놀린(crinoline) 드레스의 X형 실루엣과 과장된 부피를 가진 하체는 수태시 신장된 ‘자궁’을 연상시켜 모성적 여성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용기에 담겨진 내용물로써 음식물 원형 중

대표적인 '젖'은 가슴을 드러내는 스트랩리스(strapless) 네크라인(neckline)을 통해 표현되었다.

'삼키다'는 삼기는 동물인 '물고기'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형성해낸다. 이것은 복식에서 반짝이는 비즈(beads), 시퀸, 보석 장식 등으로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효과를 냄으로써 나타났다. 또한 머메이드(mermaid) 실루엣으로써 '물고기'의 외형적 실루엣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이는 관능성에서 비너스(그림 11), 사이렌(그림 12), 키메라(그림 13)로 표현된 디자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물고기'의 외형적 형태로부터 '물고기'의 관능성으로 유도된다. '삼키다'는 또한 '인체내부'로 이미지들을 이끌게 되며 이는 성적인 것들과 연결되게 된다. '인체내부'의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원형적 이미지는 복식에서 모피로써 표현되었다. 이는 관능성에서 레다, 비너스, 사이렌으로 표현된 디자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모피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⁸³⁾로, 여성의 모피를 착용할 경우 모피는 여성의 탐욕스러운 머리카락과 음모를 상징하게 되어 애무의 대상으로 결부될 수 있다.⁸⁴⁾ 인체내부로 이끌어진 시선은 생식기와 관련된 '인체' 자체에 집중되어 '인체 자체'를 드러냄으로써 성적 욕구를 보여주고자 한다. 복식은 인체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이용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인체'를 보여줌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관능성의 범주에서 공통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그림 11-13〉 이는 인체의 직접노출과 간접노출의 방식으로 나타나며, 직접적인 노출은 가슴, 어깨, 등, 다리 등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에로티시즘(eroticism)을 강조하는 것이다.⁸⁵⁾ 이를 위하여 실루엣 뿐 아니라 슬릿, 슬래쉬(slash), 커팅(cutting) 등의 기법을 통해 부분적인 노출이 가능하다. 간접적인 노출은 몸은 가리지만 몸에 피트되는 실루엣을 사용하여 몸의 곡선을 모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누드(nude)보다 더 관능적인 이미지를 유도할 수 있다.⁸⁶⁾ 이러한 복식을 통한 인체의 직·간접적 노출의 방법들을 통하여 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강하다'는 '대지'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대지는 남프(그림 9)〈그림 10〉로 표현된 디자인

에서 베이지 색으로 나타난다. 베이지색은 흙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가장 편안함을 주는 색으로,⁸⁷⁾ 내면으로 귀환하는 모성을 보여주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하강하다'는 또한 '빔'이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빔'은 관능성의 범주에 속하는 데다, 베스타 여사제, 사이렌, 여신, 키메라(그림 13)로 표현된 디자인에서 다크 톤의 색으로 나타났다. 검정색은 곧바로 어둠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악, 죄, 슬픔, 비밀, 마법, 더러운, 불행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⁸⁸⁾ 이는 공포성과 연관되며 이러한 어두운 측면은 여성의 속성이었으며, 여성은 성적인 유혹으로 남성을 타락시켰다. 이것이 밤 체제에서는 보다 신비로운 의미로서 관능성을 내포하는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검정과 유사한 다크 톤의 색에도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극적 체제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극적 체제의 상징성은 양성성으로, 순환성과 진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양성성에 해당하는 복식 형식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극적 체제에 해당되는 동사적 구도로부터 복식 형식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해석해 보도록 한다.

① 양성성

양성성은 대립되는 것의 결합을 의미한다. 신화적 표현과 관련한 언어 표현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성성을 의미하는 이미지들을 추출하였다. '양성적인 모호한 매력, 강하고 섹시한' 등의 언어 표현을 양성성을 내포한 표현으로 보았으며, 이 내용과 함께 신화적 표현으로는 아르테미스(그림 14), 아마존 여전사, 아프로디테(그림 15)⁸⁹⁾, 여신, 키메라(그림 16)⁹⁰⁾, 헤라클레스가 나타났다. 양성성을 내포한 복식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흰색, 금색, 테일러드 수트, 짧은 길이, 원숄더형, 갑옷형, 코르셋 룩이 나타났는데, 낮 체제와 밤 체제의 조형적 특성들이 혼합되어 나타났다.〈그림 14〉〈그림 15〉〈그림 16〉

아르테미스의 경우, 낮 체제의 영웅성에서는 통드레스에 활을 당기는 자세로 등장했었는데(그림 4). 극적 체제의 양성성에서도 활을 두르고 있으나 짧은



〈그림 1〉 순수성.
미네르바(Pierre Balmain),
Goddess, 2003, p. 204.



〈그림 2〉 순수성.
여신(Vionnet),
Vogue, 2006, p. 182.



〈그림 3〉 순수성.
헬레나(Vera Wang),
Vogue, 2007, p. 135.



〈그림 4〉 영웅성, 아르테미스
(Jonathan Saunders), *Vogue*,
2008, p. 187



〈그림 5〉 영웅성,
아테나(Givenchy),
Goddess, 2003, p. 203.



〈그림 6〉 영웅성, 여신(Yohji Yamamoto), *Vogue*, 2004, pp. 358-359.



〈그림 7〉 공포성,
비너스(Jean Paul Gaultier),
Goddess, 2003, p.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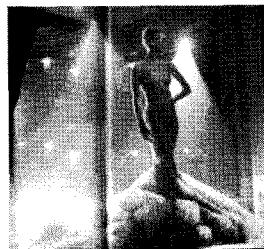
〈그림 8〉 공포성, 큐클롭스와
미노타우로스(Gattinoni, Milan collection, 2002 S/S), *Book*,
2002, p. 257.



〈그림 9〉 모성, 님프
(Michael Kors),
Vogue, 2008, 11, p. 276.



〈그림 10〉 모성,
님프(Carolyne Roehm),
Vogue, 1999, 1, p. 79.



〈그림 11〉 관능성, 비너스
(Atelier Versace), *Vogue*,
2003, 9, pp. 652-653



〈그림 12〉 관능성,
사이렌(Jean Paul Gaultier),
Vogue, 2008, 5, p. 233.



〈그림 13〉 관능성,
키메라(Thierry Mugler, Paris collection, 1997 F/W),
Collezioni, 1997, p. 246.



〈그림 14〉 양성성,
아르테미스(Givenchy),
Goddess, 2003, p. 207.



〈그림 15〉 양성성,
아프로디테(Alexander McQueen),
Vogue, 2006, p. 397.



〈그림 16〉 양성성,
키메라(Givenchy),
Vogue, 1997, p. 152.

갑옷형의 퍼트되는 드레스로 코르셋과 유사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4〉 이는 낮 체제와 밤 체제의 특성이 결합되어 양성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로디테〈그림 15〉와 키메라〈그림 16〉의 경우 낮 체제와 밤 체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테일러드(tailored) 수트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테일러드 수트가 양성성을 표현하는 아이템임을 알 수 있다.

② 극적 체제의 복식 형식 해석

극적 체제에서는 ‘포옹하다’, ‘순환하다’, ‘리듬있는 마찰’의 동사적 구도에 의해 이미지가 형성된다.〈표 5〉 위에서 분석한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표 6〉에 적용하여 각 동사적 구도로부터 파생된 원형적 이미지들이 복식 조형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 범위 내에서 살펴보았다.

‘포옹하다’에서 비롯되어 대립되는 것의 결합을 통해 ‘남녀양성’이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복식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테일러드 수트, 갑옷형, 코르셋 륙, 짧은 길이 등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은 남성복의 착용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가까워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동등한 권리의 획득이 가능해졌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던 여성은 에어로빅과 운동으로 단련된 건강미의 사회적인 부각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으로의 전환을 겪었다. 1980년대에는 파워 수트를 입고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당당히 뛰어든 파워 우먼(power woman)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권위와 권력을 가진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성복 수트의 착용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남성복 요소의 차용은 기존에 남성에게만 주어진 권위와 힘, 특권을 이제 여성이 가져가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또한 이는 착용자에게 권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모호한 유혹적인 매력을 함께 가지게 한다. 남성복의 차용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움과 함께 규범화된 젠더에 따른 적합한 착장이라는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며, 모호한 양성성과 함께 동성애의 긴장을 풍김으로써 이성애라는 또 다른 기

존의 사회 질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⁹¹⁾ 이처럼 테일러드 수트는 대표적인 앤드로지너스(androgy nous) 륙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그림 15〉〈그림 16〉 코르셋 륙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오히려 무기화하여 갑옷과 같은 공격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들이 양성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활용되었다.〈그림 14〉 갑옷형은 그 자체로는 전사의 원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웅성에 해당되지만, 인체의 실루엣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관능성을 내포한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은 양성성을 내포하는 형식이다.〈그림 14〉 짧은 길이는 남성적인 활동성을 내포하는 영웅성의 조형적 특징이기도 하다. 그와 함께 짧은 길이에 의한 여성의 다리 노출은 관능성의 조형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양성성을 내포하게 되었다.〈그림 14〉〈그림 15〉〈그림 16〉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 해석을 위한 틀〈표 6〉을 활용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화 이미지와 상징성을 통해 동사적 구도와 원형적 이미지, 복식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표 7〉과 같다. 복식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들은 신화 이미지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원형적 이미지와 연결된다. 원형적 이미지는 인간의 무의식이 최초로 발현된 이미지로, 의미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미는 디자인 영감이자 내용이다. 그러므로 원형적 이미지와 복식 형식 간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물은 창조적 디자인을 위한 체계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뒤팡의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서양 문화의 큰 뿌리가 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이 현대패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의미에서 형식에 이르는 유기적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를 뒤팡의 분류체계에 따라 상징성을 분석한 결과 낮 체제

에서는 순수성, 영웅성, 공포성이, 밤 체제에서는 모성, 관능성, 탐욕성이, 극적 체제에서는 양성성, 순환성, 진보성이 도출되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성은, 낮 체제는 순수성, 영웅성, 공포성, 밤 체제는 모성, 관능성, 극적 체제는 양성성의 범주로 나타났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상징과 이미지 분류에서 나타났던 탐욕성, 순환성, 진보성은 현대 패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화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순수성, 영웅성, 공포성, 모성, 관능성, 양성성은 현대 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임을 시사해 준다. 특히 관능성과 양성성은 신화 이미지의 체제가 전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이미지는 신화 속에서 공포성으로서 죽음과 공포를 내포하고 있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밤 체제와 극적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및 지위상승으로 인한 성역할 변화가 그리스·로마 신화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관능성과 양성성의 특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화 이미지 중 여신과 아프로디테/비너스는 전 체제에 걸쳐서 등장하며, 둘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순수성, 영웅성, 관능성, 양성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여성상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긍정적 가치임을 시사한다.

둘째, 뒤팽의 체제에서는 그 내포하는 의미가 동사적 구도를 통해 이미지로 나타난다. 동사적 구도는 최초로 원형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그것이 사회문화적 맥락 하의 이미지 혹은 상징으로 나타나므로, 동사적 구도를 통해 신화 이미지의 원형적 이미지와 복식 형식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다. 원형적 이미지는 인간 무의식의 최초의 발현으로 디자인 영감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동사적 구도를 통해 의미적 차

〈표 7〉 동사적 구도와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미지·상징성과 복식 형식의 관계 해석

체제	상징성	동사적 구도	원형적 이미지	신화 이미지	복식 조형 형식	
낮 체제	순수성 영웅성 공포성	상승하다	거대화	미네르바, 아테나, 비너스, 여신, 헬레나, 아르테미스	롱 드레스, 드레이퍼리	
			날개, 새	아테나, 여신	쉬폰, 바람에 휘날리는 스커트, 새깃털 장식	
			어깨	아틀라스	모피 케이프	
		빛나다	빛	베스타의 여사제, 비너스/아프로디테, 여신, 헬레나, 미네르바/아테나, 폐가수스	흰색, 금색, 실크 새틴의 광택	
		분리하다	전사·무기	아르테미스, 아테나, 여신, 폐가수스	짧은 길이, 흥감, 벨트, 역동적인 포즈, 화살	
		추락하다	추락한 과물	퀴클롭스와 미노타우로스	퀴클롭스와 미노타우로스 무늬	
밤 체제	모성 관능성	심き다	담다	자궁, 젖	님프	아워글래스 실루엣과 깊은 네크라인을 통한 가슴과 엉덩이의 강조
			물고기	비너스, 사이렌, 키메라	반짝이는 비즈 장식, 머메이드 실루엣	
			인체 내부	레다, 비너스, 사이렌	모피로 된 코트, 불레로, 스커트	
		인체	대지	베스타의 여사제, 비너스, 사이렌, 여신, 키메라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슬릿 혹은 실루엣	
		하강하다	밤	레다, 비너스, 사이렌, 여신, 키메라	베이지 색	
극적 체제	양성성	포옹하다	남녀 양성	아르테미스, 아마존여전사, 아프로디테, 여신, 키메라, 헤라클레스	다크 톤의 색 테일러드 수트, 짧은 길이, 갑옷형, 코르셋 뚝 등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디자인	

원에서 원형적 이미지와 복식 형식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관계를 추적함은 체계적인 상상력 발휘의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뒤랑의 이론을 활용한 이미지 해석 틀을 활용하여 원형적 이미지와 복식 조형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었으며, 의미와 형식이 동사적 구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디자인 영감과 복식 형식을 창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디자인 창조와 디자인 비평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본 이미지의 체계 전환은 시대적 의식의 변화와 연결되므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복식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복식 연구에 있어서 각각적인 활용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Bowles, H. (2003. 3). mighty aphrodite. *Vogue U.S.A.* pp. 478-485.
- 2) 알렉산더 맥퀸(A. McQueen)은 1997년 지방시(Givenchy)를 위한 첫 컬렉션에서 '황금 양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여 큰 이슈를 끌었다. (1997. 4). *Vogue U.S.A.* pp. 288-291.
- 3) 장 테세(Jean Dessès, 페디아의 조각상의 고전적인 드레이프에서 영감을 받은 정교한 쉬폰(chiffon) 플리츠(pleats)로 유명하다.)의 가르침을 받은 발렌티노는 1960년 로마에 자신의 하우스를 차린 이후 영화의 여신들을 위한 우아한 드레스들을 디자인하였다. Bowles, H. (2003. 3). *op. cit.* pp. 478-485.
- 4) Durand, G. (1996). *Introduction à La Mythodologie*. 유평근 역 (1998).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심층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살림, pp. 35-42.
- 5) 안진태 (2004). 신화학강의. 서울: 열린책들, pp. 53-56.
- 6) 김현자 (2004). 신화, 신들의 역사 인간의 이미지. 서울: 책세상, pp. 81-87.
- 7) 유평근 역 (1998). 앞의 책, pp. 52-53.
- 8) 위의 책, p. 53.
- 9) 이경희 (2003). 그리스·로마의 신화를 주제로 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 경혜, 최현숙 (2003).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한국 창작무용 의상디자인 개발. 디자인포럼21, 7. pp. 141-164; 이현진·박은정 (2007). 신화를 motif로 한 Hair Art 연구.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5), pp. 90-99; 서명자 (2005).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 체계 연구: 영화 '스타워즈' 여자주인공 의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기천 (2004).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 디자인에 나타난 그리스 신화적 이미지: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건국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바슬라르는 상상력이 이성,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임을 주장하였다. 진형준 (1982). 상징 해석 방법론에 대한 시론: 절베르 뒤랑을 중심으로. *홍익논총*, 제14집, pp. 523-524.
- 11) Durand,G. (1969).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진형준 역 (2008).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파주: 문학동네, p. 670.
- 12) 김치수, 김성도, 박인철, 박일우 (2002).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9-43.
- 13) Leroi-Gouhan (1943). *L'homme et la matière et milieu et technique*. Albin Michel.
- 14)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 53.
- 15) 유평근, 진형준 (2002). 이미지. 서울: 살림, p. 206.
- 16)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 53.
- 17) 유평근, 진형준 (2002). 앞의 책, p. 210.
- 18) 진형준 (1982). 앞의 책, p. 528.
- 19)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p. 58-59.
- 20) 위의 책, pp. 58-59.
- 21) 유평근, 진형준 (2002). 앞의 책, p. 211.
- 22)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 69.
- 23) 유평근, 진형준 (2002). 앞의 책, pp. 210-211.
- 24)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 63.
- 25) 위의 책, p. 69.
- 26) 유평근, 진형준 (2002). 앞의 책, pp. 21-211.
- 27)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 69.
- 28) 위의 책, pp. 67-68.
- 29) 진형준 (1992). 상상적인 것의 인간학: 절베르 뒤랑의 신화 방법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63.
- 30) 위의 책, p. 63.
- 31) 유평근, 진형준 (2002). 앞의 책, p. 212.
- 32) 진형준 (1992). 앞의 책, pp. 63-64.
- 33) Jung, C. G. (1950). *Les Types psychologiques*. Genève: Georg, p. 79.
- 34)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 68.
- 35) 유평근, 진형준 (2002). 앞의 책, p. 215.
- 36)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p. 89-279.
- 37) 위의 책, pp. 89-279.
- 38) 자료검색일 2010. 1. 10. 자료출처 www.naver.com
- 39) 장영란 (2005). 그리스 신화: 상징과 이미지 읽기. 서울: 살림, p.100
- 40)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p. 89-279.
- 41) 위의 책, pp. 89-279.
- 42) 위의 책, pp. 89-279.
- 43) 위의 책, pp. 89-279.
- 44) 위의 책, pp. 89-279.
- 45) Carpenter, T. H. (1991). *Art and Myth in Ancient Greece*. 김숙 역 (1998). 고대 그리스의 미술과 신화. 서울: 시공사, p. 214.
- 46)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p. 89-279.
- 47) 위의 책, pp. 89-279.
- 48) 위의 책, pp. 89-279.
- 49) 위의 책, pp. 89-279.

- 50)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p. 283-325.
- 51) *위의 책*, pp. 283-325.
- 52) *위의 책*, pp. 283-325.
- 53) *위의 책*, pp. 283-325.
- 54) *위의 책*, pp. 283-325.
- 55) '삼키는' 행위는 무언가를 삼키고 있음으로 인해 중복을 일으킨다. 이러한 중복이 온갖 끼워 넣기의 상상력을 낳는 원천이 된다. 큰 것을 작은 것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를 '걸리버화'라고 명명한다.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p. 313-314.
- 56)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p. 283-325.
- 57) *위의 책*, pp. 283-325.
- 58) *위의 책*, pp. 283-325.
- 59)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p. 429-578.
- 60) *위의 책*, pp. 429-578.
- 61) *위의 책*, pp. 429-578.
- 62) Ovidius. *Metamorphoses*. 이윤기 역 (1994). *변신이야기: 신들의 전성시대*. 서울: 민음사, p. 194.
- 63) 진형준 역 (2008). *앞의 책*, pp. 429-578.
- 64) *위의 책*, pp. 429-578.
- 65)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3). *Goddess: the classical mode*.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204.
- 66) Mower, S. (2006. 12). goddess worship. *Vogue U.S.A.*, p. 182.
- 67) Goodman, T. (2007. 7). fade to back. *Vogue U.S.A.*, p. 135.
- 68) Posnick, P. (2008. 6). falling off the map. *Vogue U.S.A.*, p. 187.
- 69) Coddington, G. (2004. 12). frieze frame. *Vogue U.S.A.*, pp. 358-359.
- 70) Gattinoni. Milan collection 2002 S/S. 57. *Book*, p. 257.
- 71) 남기은 (2008). *복식에 나타난 드레이퍼리 기법과 미적 가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2) 이윤숙, 신정원, 안미영, 김은애 (2001). 의류소재의 구조적 특성이 감각특성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8), p. 48.
- 73) 최재경 (2005). *복식에 표현된 흰색의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0.
- 74) *위의 책*, p. 38.
- 75) Heller, E. (2000). *Wie Farben auf Gefühl und Verstand Wirken*. 이영희 역 (2002). *색의 유혹: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 이야기*. 서울: 예담, pp. 389-407.
- 76) 김주연, 이효진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금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8(3), p. 130.
- 77) Coddington, G. (2008. 11). field of dreams. *Vogue U.S.A.*, p. 276.
- 78) Coben, D. & Kotur, A. (1999. 1). sprites and nymphs. *Vogue U.S.A.*, p. 79
- 79) Coddington, G. (2003. 9). grand illusion. *Vogue U.S.A.*, pp. 652-653
- 80) Coddington, G. (2008. 5). daring do. *Vogue U.S.A.*, p. 233.
- 81) Thierry Mugler Paris collection. 1997 F/W. 60. *Collezioni*, p. 246.
- 82) 김정선, 김민자 (2001). 비토리아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복식*, 51(22).
- 83) 이경화, 한명숙 (1999).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Eroticism)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1), p. 138.
- 84) *위의 책*, p. 138.
- 85) *위의 책*, pp. 134-135.
- 86) *위의 책*, pp. 134-135.
- 87) 이영희 역. *앞의 책*, pp. 431-435.
- 88) *위의 책*, pp. 177-215.
- 89) Mower, S. (2006. 3). revival spirit. *Vogue U.S.A.*, p. 397.
- 90) Reed, J. (1997. 4). leapin' lizards. *Vogue U.S.A.*, p. 152.
- 91) 임현주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품므파탈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0-81.